나주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선제 전수검사

동수농공단지 이동선별진료소 2차 운영

1차 전수 검사(23일) 157명 '전원 음성'

나주시가 외국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다.

27일 나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수동농공단지 내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50개 업체, 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익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동수농공단지는 다 부류 사업장이 밀집돼있고 타 지역 간 제조 물품 이동이 잦아 확진자 발생 시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방역취약지대로 보다 선제적인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정보력이 부족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 23일 동수농공단지 외국인 근로사업장 19개 업체, 157명에 대한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선별진료소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근무, 의사소통 여건과 집단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이동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 노출된 감염취약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취업 스터디 그룹' 참여자 모집

다음달 31일까지 20명 모집…전화·온라인·방문 신청·접수

화순군이 '화순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운영하는 취업 스터디 그룹 참여자를 모집한다.

화순군은 지난 3월부터 청년 주도 일자리 탐색 프로그램인 취업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취업 스터디 그룹에 청년 20명이 참여해 매주 스터디를 하며 집중적인 구직 훈련을 했고, 이 중 2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하반기에도 정원 20명을 모집해 운영한다. 취업 스터디 참여 신청은 8월 31일까지 받는다. 전화, 온라인,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스터디 그룹을 통해 1:1 적성검사, 스터디 그룹 커리큘럼 지원, 각종 구직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기업 채용 분석 특강도 신청·접수하고 있다. 8월 17일 오후 7시 윤종세 더봄 교육디자인 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온라인 라이브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 청년 일자리 카페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 구직자 82명이 일자리 카페에 등록하고 기본·심층 상담, MBTI 성격 유형 검사, 취업 특강 등 구직 전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자리 카페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만18세~39세)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카페는 드롭탑 화순점 2층(화순읍 중앙로 93-8)에서 평일 13: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1-375-5002(평일 13:00~18:00), 온라인 카카오톡 didimdol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대규모 조리·현장 배달음식점 일제 점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위생업소 특별방역수칙 및 위생점검 병행 실시

담양군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역 내 대규모 조리 및 배달음식점의 점검에 나선다.

담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날이 지속되고 있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포장, 배달업소 중심으로 내달 6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과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완제품 보존 및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식품위생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휴가철 관광객 다수 유입에 대비하고자 유흥시설·다방·주류 판매 음식점 등 방역취약시설 대상 집중 방역수칙 및 위생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전남사회적경제유통센터 업무협약 체결

취약계층 사회 통합·삶의 질 향상 실현 위해

구례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경제 유통활성화와 자활 생산품 판매장터 마련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자활참여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실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자활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형에 따른 유통전략 제시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공유하게 된다.

양철승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보다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지역자활센터는 현재 9개 사업단(GateWay사업단, 다빈새싹삼사업단, 모드리(청소)사업단, 무지개도우미사업단, 섬진강영농사업단, 해묵은 이야기사업단, 드레꽃사업단, 바삭사업단, 클린데이사업단)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아카데미 강연 책으로 만나보세요"

장성군이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이하 장성아카데미) 강연집(통권 제25호) '일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울림'을 발간했다.

'일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울림'은 2019년 7월 제1096회부터 2020년 1월 제1120회 강연 가운데 강연집 발간에 동의한 22회분을 요약·수록했다. 민형배 국회의원, 탁재형 PD,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연을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장성아카데미 강연집은 황미르랜드에 조성된 '은행나무 수국길'을 표지에 담았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명물로 재탄생한 이곳은 숨겨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착수

곡성군이 지난 27일 202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에 '2026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약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곡성군은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올해 12월까지 중장기 계획 보완 용역을 진행한다. 중점적으로 보완이 진행될 분야로는 농업 및 임업, 인구정책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분야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해당 분야에 대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전략 제시, 미래 먹거리 발굴, 세부 실행계획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곡성군은 팀장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미래전략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용역사와 함께 자문과 과제 발굴 등에 참여하며 계획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7일 착수보고회에서 첫 대면한 용역사(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미래전략TF팀은 지역의 개별성과 공공 정책의 보편성을 모두 갖춘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정책 발굴을 다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